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날이 갈수록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아버지 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하고있다.

수령영생의 새장을 펼친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첫 년대에 우리 인민은 조국과 민족, 인류앞에 쌓아올린 절세위인의 혁명업적의 위대함을 온넋으로 절감하였으며 태양의 력사는 영원불멸하리라 하는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리 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원수님께서 한평생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바치시며 후손만대의 존엄과 번영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개척해온 억척의 힘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 중앙추모대회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0돐 중앙추모대회가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추모대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장병들,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추모대회는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추모대회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중앙추모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 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모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를

그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우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는것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조국과 민족,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며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어 우리나라를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만고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이 지난 10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혁명신념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빛나는 새 승리를 향하여, 주체혁명의 줄기찬 전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추모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본사기자